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주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00:1-5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30장(새찬송 14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65번(새찬송106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저희임을 겸손히 시인하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면 아무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해 힘든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에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음을 선포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고린도후서 12:7-10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은전한 은혜”

봉 헌(offering) 6장(새찬송 2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312장(새찬송 593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배 후 추수감사절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일 예배 후 2022년 구역회가 있습니다.
4. 교우동정
 - 고 서희숙권사님의 장례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인적 자원들이 잘 공급되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세계 각국에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 미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

<말씀묵상> 고린도후서 12:7-10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1. 사도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무엇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7절) 나에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2.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까?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8-10절)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 나 또한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합니까?

❖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쳐 과분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한계가 있고, 뭔가 부족한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한없이 약함을 느낄 때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때로는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인생의 곤고를 겪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고비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그분의 은혜가 인색하다고 여겨졌던 그때가, 그야말로 가장 큰 은혜의 시기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환경만 조성되면 교만이라는 무서운 옛 자아의 본성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유혹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이 엄청난 은혜 뒤에 타락의 쓴잔을 마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도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컸기에 바울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 복음 사역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도리어 그 약함이 통로가 되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종류 간에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나타나기 위한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주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